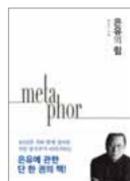


은유는 시가 생성되는 비밀의 핵심
상상력의 내적 지평 무한으로 확장



은유의 힘

장석주 지음

시인이자 독서관, 문장노동자로 불리는 이가 있다. 그는 40년간 시와 함께 살아왔다. 바로 장석주 시인이다. 그가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시인들의 호응 속에 월간 '시와 표현'에 연재했던 글을 다듬어 책으로 묶어냈다.

사실 시의 흥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창작되는 시만 해도 수 천 편을 넘을 것이다. 그러나 시집은 팔리지 않을 정도로 시를 찾는 독자들은 점차 줄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진부한 시들이 양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진부한 시들도 시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퍼뜨리기 때문일지 모른다. 어떤 시들은 과언 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진부한 시들이 양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진부한 시들도 시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퍼뜨리기 때문일지 모른다.

장석주 시인이 펴낸 '은유의 힘'은 시적 상상력의 지평을 무한으로 확장한다. 저자는 시가 생성되는 비밀의 핵심을 은유로 보고, 이와 연관된 사유와 영감을 갖길스러운 문장으로 풀어낸다. 이병률 시인은

“수줍게 시를 쓰기 시작한 몇몇 어린 친구들에게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고 권해야겠다”고 추천한다.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시들은 국내외 대표 시인들의 작품을 망라한다. 책에는 윌트 휘트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윌리엄 블레이크, 파블로 네루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같은 외국 시인들과 김소월, 이상, 서정주, 윤동주, 김수영, 고은, 정현중, 송찬호, 황인숙, 김민정, 오은, 유진목 등의 시인이 고루 담겨 있다.

사실 처음 시를 접하는 사람들은 낯설이나 해독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시가 '은유'라는 어법을 쓰기 때문이다. 시를 가르치는 많은 교과서들은 은유를 가르칠 만큼 은유의 비중은 크다.

물론 시가 은유만을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은유가 없는 시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시는 은유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유는 시의 숨결이고 심장 박동, 시의 알파이고 오메가다. 시는 항상 시 너머인데, 그 도약과 비밀의 원소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은유다. 상상력의 내적 지평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은유에 대해 사유하며 그 내부로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웠다.”

〈다산책방·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왜 사람들은 도시를, 소비를, 학교를 떠나는가



대탈주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편저

도시를 떠나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가 강요한 소비적 삶을 거부하고 생활협동조합으로 모여드는 젊은이들,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찾는 청소년들... 이들의 선택은 과연 힘겨운 현실 도피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행동일까?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이 펴낸 '대탈주'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탈주' 현상을 조명한 것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진단과 대안이 담겨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탈주'는 기존 사회제도로부터의 이탈일 뿐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시도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탈주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공동체를 살펴보고 이러한 탈주운동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학자 다니엘 로이크는 자본주의 내에 탈자본주의적 공간을 만들어서 엑스터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취한다. 탈주의 정치는 결코 탈정치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삶-정치의 시도라는 것이다.

2부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본다.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사회문제들을 '질병' 개념으로 다루는 시각에 비판을 가하는 한편 그 개념을 정교화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특이점이 실린 3부에서는 '재벌 돈더미, 서민 빚더미'라는 표제 아래 한국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의 관점을 소개한다.

재벌독점과 서민 부채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분석하는 대안은 우리 사회 개혁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사월의책·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반역실록

박영규 지음



조선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수히 많은 모반과 권력 다툼이 있었다. 조선은 건국한 이성계는 고려를 배반한 역적이었다. 이성계는 반역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했다.

알려진 대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패자는 악인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반역자라면 그에 관한 기록은 철저하게 폄훼되고 왜곡된다.

반역(反逆)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것을 거스름” 또는 “현재의 통치자나 통치 세력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으려 꾀함”이라는 뜻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반역은 후자에 가깝다. 그것은 곧 “시대의 최고 권력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사를 반역의 시선으로 보는 이가 있다. 역사 대중화의 기수이자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는 ‘조선반역실록’에서 조선의 역사를 ‘반역’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한다.

“반역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비롯된다. 반역은 그 시대를 부정하고,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는 장면.

(KBS 드라마 '정도전' 캡처)

다른 시대를 꿈꾸는 일이며, 다른 권력을 생산하는 일인 까닭에 그렇다. 따라서 조선의 역사를 반역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숨겨진 조선의 속살을 들춰내는 일이기도 하다.”

저자는 조선의 국조 이성계는 세 번의 반역행위를 했다고 본다. 첫째는 자신을 믿고 군대를 내준 우왕과 최영을 배반해 왕을 내쫓고 상관을 죽인 일이다. 다른 하나는 청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옹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공양왕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들 수 있다.

그가 뿌린 반역의 씨앗은 조선 왕조 내내 피비린내 나는 역사로 전이되었다. 알려진 대로 이방원은 이성계를 용상에서 밀어내고, 아비의 신하들을 도륙했다. 그 뿐 아니라 배다른 동생들을 죽이고, 동복형제(同腹兄弟)끼리는 칼부림을 했다.

저자는 방원의 의심과 불안은 조강지처를 몰아세우다 못해 “처남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으며, 사촌까지 반역의 죄를 씌워 죽였”다고 본다. 한번 전이된 반역의 씨로 “수양이 아비와 형의 충신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우들을 죽였” 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모반과 좌절,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진다. 아예 반역자로 나서 새 왕조를 도모하려는 이들이 나타난다. 이징옥, 이시애, 남이, 허균, 이괄, 이인좌 등이 그와 같은 이들이다.

6진을 기반으로 조선을 차지하려 했던 이시애는 김주의 거부였다. 그는 함길도 전체에서 명망이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일설에는 그가 모반을 계획한 이유로 호패법이 실시되면 재산을 뺏길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

나 저자는 “수양대군이 왕을 내쫓고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병력을 잘 움직이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창한 꿈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선왕의 복수를 위해 난을 일으킨 이도 있었다. 대표적 인물이 소론 강경파 이인좌다. 그는 영조가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는 소문에 자극받아 청주성을 장악했다. 그러나 영조가 소론 온건파를 중용한 상황에서 난을 일으킨 세력은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소론에 의한 소론의 반란이 진압당한 것이다.

저자는 12개 반역 사건을 토대로 시대의 진짜 모습을 무엇인지 묻는다. “서울의 행간을 자세히 살피고,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면 반역의 그늘 속에 숨겨진 그 시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김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에베레스트 만년설 아래 홀로 죽어간 남자 이야기



한결같이 흘러가는 시간

저스틴 고 지음
김목인 옮김

80년 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홀로 죽어간 남자가 있다.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1차대전에 참전해 빅토리아 십자훈장까지 받은 에슬리 월싱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됐던, 저명한 등반가이기도 한 그는 안타깝게 눈 속에

서 잠들었다. 그리고 그 한 달 전, 에슬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 여인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오프라 매거진이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한 신예 작가 저스틴 고가 펴낸 '한결같이 흘러가는 시간'은 에베레스트 만년설 아래 홀로 죽어간 남자와 80년 전 사랑을 쫓는 또 한 남자의 이야기다.

2004년 대학을 갓 졸업한 23세의 트리斯坦 캠벨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든다. 우편으로 배달된 편지에는 그가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일지도 모른다는 짧은 문구와 영국의 한 대형 법무법인 연락처가 적혀 있다. 〈시공사·1만5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절취선’·‘피아노’... 자신만의 언어로 상처 들여다보기



아무도 연주할 수 없는 악보

이화영 지음

현대인들은 저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적잖은 상처를 지니고 산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아물어 치유가 될까? 상처를 응시하되 때를 기다려 치유되지는 않는다. 시인은 자신만의 언어와 시각으로 상처를 들여다보는 존재다. 현대시 시인선으로 출간된 이화영시

인의 시집 '아무도 연주할 수 없는 악보'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수다한 상처를 면밀하게 주시한다. 4부로 된 시집에는 '너.....가는 거니', '몸속의 사인', '절취선', '100g', '숨소리, 어미곰 자리', '피아노' 등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많은 작품들은 상처와 연관이 돼 있는데, 존재론적 자아의 성장과 무관치 않다. 오래도록 내면을 주시하며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섬세하게 포착해낸 솜씨가 만만치 않다. 상처를 응시하되 때를 기다려 치유되지는 않는다. 시인은 자신만의 언어와 시각으로 상처를 들여다보는 존재다. 〈한국문연·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